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IASB와 FASB 공동 프로젝트의 검토

이 종 태*

A Study of the IASB and FASB Joint Project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Abstract

The project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is a joint project of IASB and FASB to establish a common standard that would improve how information is organized and presen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summarized the staff draft of an exposure draft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which was posted on website of both IASB and FASB in July 2010. The Summary of the proposal by the staff draft of IASB is as follows.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based on two core principles-cohesiveness and disaggregation. The cash flow statement should present all cash receipts and payments(a direct method statement) and will be disaggregated only by nature. The financial statement notes should include an analysis of the changes between the opening and closing balance of important assets and liabilities and include the remeasurement information recognized in the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The joint project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is an ongoing project. I agree to the proposal of the staff draft by IASB, especially the proposal on the structure of financial statements by cohesiveness and disaggregation principles and direct method cash flow statements.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decisions of joint project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hereafter. The proposal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of FASB are different from those of IASB in three points. We must also pay attention to that differences hereafter.

*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I. 머리말

재무제표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이 회계정보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기준은 1997년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의 IAS 제1호가 발표된 이래, 2003년, 2007년, 2011년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제정(2008년, 2009년, 2012년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거래는 각 재무제표에 같은 방법으로 표시되거나 분류되지 않는다. 예컨대 현금흐름표에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는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 재무제표의 정보가 다른 재무제표의 정보와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기준은 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의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검토되어 왔다. 이 공동 프로젝트는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보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공통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① IAS 제1호 「재무제표의 표시」(IASB, 1997, revised 2003 and 2007) 및 IAS 제7호 「현금흐름표」(IASB, 1992)의 대체
- ② 기타 포괄손익(OCI: other comprehensive income)의 표시
- ③ 중단사업의 표시

이 중 ②와 ③의 문제는 ①의 문제와는 별도의 내용으로 상기 공동 프로젝트에서 분리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①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①의 문제에 대해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2008년 10월에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토의문서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예비견해」(IASB, 2008, Discussion Paper: 이하, DP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상반기 중 공개초안을 공표하고, 2011년 6월까지 기준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2010년 11월의 진행보고서(IASB, 2010b)에 의하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실시하기로 한 결과, 2011년 1분기까지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2011년 6월 이후에 하기로 변경하였다.

이 변경에 의해 2010년 상반기 공표 예

정이었던 공개초안에 대신하여 2010년 7월에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스텝초안」(IASB, 2010a, Staff Draft: 이하, SD라 한다)을 공표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SD에는 DP에 대한 코멘트, 특히 재무제표의 작성자 및 이용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 FASB도 같은 스텝초안(FASB, 2010)을 동시에 공표하였는데, 이 두 스텝초안은 2010년 4월에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당해 프로젝트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ASB에 의한 SD의 내용을 DP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IASB의 SD가 IAS 제1호 및 제7호의 변경을 검토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즉 ① 일체성이 있는 재무제표의 구조, ②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③ 주식의 공시정보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또한 FASB에 의한 SD와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하고 재무제표의 표시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일체성이 있는 재무제표의 구조

1. 재무제표 표시의 원칙

기업이 재무제표에 회계정보를 어떻게

표시하는가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 하면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중심적 특성, 즉 재무정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전달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이러한 기업 이해관계자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관심에 대처하기 위해 서두에서 언급한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이다. 그 관심이란 현행의 규정이 너무 많은 대체적인 표시를 허용하고 있고, 재무제표의 정보가 집합되어 일관성이 없는 형태로 표시된 결과, 재무제표와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IASB는 DP에서 재무보고의 목적 및 재무제표이용자와 자문그룹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새로운 재무제표의 표시를 제안하면서 재무제표 표시의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DP, S3).

- ① 기업활동의 일체성이 있는 재무상황(financial picture)을 나타낼 것(일체성의 목적): 일체성이 있는 재무상이란 재무제표 간 항목의 관계가 명확하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가능한 한 상호보완적인 것을 의미한다.
- ②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정보를 분해할 것(분해의 목적)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의 평가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재무제표의 분석에 있어서 는 합리적으로 동질적인 항목의 그룹으로 분해되어 있는 재무정보가 필요하다. 항목이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는 미래 현금흐름을 서로 다르게 예측하려고 생각할 것이다.

- ③ 이용자가 기업의 유동성 및 재무탄력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표시할 것(유동성 및 재무탄력성의 목적): 기업의 유동성에 관한 정보는 기한이 도래한 재무계약을 이행하는 능력을 이용자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무탄력성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여 예기치 못한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용자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SD에서는 유동성 및 재무탄력성에 대한 목적은 없어지고 일체성의 목적과 분해의 목적은 일체성의 원칙과 분해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재무제표의 작성자 및 이용자 그룹의 DP에 대한 코멘트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DP에서 추구하고 있던 이론적 합리성에서 실행가능성의 추구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일체성이 있는 재무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 항목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각 재무제표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DP에서는 일체성이 과목 간 기준으

로 적용되었지만, SD에서는 이를 완화시켜 정보가 보다 쉽게 관련되도록 과목 간 일체성 대신 동일한 부문(sections), 구분(categories), 소구분(subcategories)으로 각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해의 원칙도 조금 변화를 주었다. 분해란 자원이 사용되는 활동(기능)이나 자원의 경제적 특성(성격)에 의해 자원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DP에서는 기능별, 성격별로 분해하는 것에 추가하여 측정기준에 의해 유사한 자산과 부채를 분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공정가치로 측정된 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항목과는 별도로 표시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SD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DP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기능별(매출액, 매출원가, 관리비 등)과 성격별(도매 매출액, 소매 매출액, 급료, 원재료비 등)로 분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SD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기능별 및 성격별로 분해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성격별로 분해된 수익과 비용의 정보는 손익계산서의 본체가 아니라 주석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금흐름표에서의 현금흐름 정보는 성격별로만 분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SD에서는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

름표의 각 항목 간 표시에 있어 일체성의 원칙과 분해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각 항목 간 표시에 있어 완전한 일체성을 가져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 재무제표가 동일한 구분으로 관련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면 이는 동일한 항목이 아니어도 좋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DP에서는 이론적 합리성, 즉 재무제표의 정합성¹⁾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각 재무제표의 항목 간 표시의 일체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2. 일체성 있는 재무제표의 구조

DP에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양식으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와 스스로 사업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재무활동)에 관한 정보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다시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와 투자활동에 관한 정보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는 자금조달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유주 이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관한 정보와 소유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관한 정보로 구

분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중단사업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인 사업활동 및 재무활동과는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고, 법인세에 관한 정보를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정보와는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DP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이에 비해 SD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사업활동과 재무활동의 두 가지 부문으로 대별하고, 이들 부문으로 표시할 수 없는 복수구분거래, 법인세, 중단사업의 세 가지 부문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사업활동 부문은 영업구분과 투자구분으로 나뉘고, 영업구분에는 영업재무의 소구분이 추가된다. 재무활동 부문은 재무상태표에 부채구분과 자본구분으로 나뉜다. 복수구분거래는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서의 부문으로 기타 포괄손익(OCI)은 당기순이익의 계산과는 독립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이러한 SD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이와 같이 SD에서는 일체성의 원칙과 분해의 원칙에 의해 각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간의 일체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조를 간단한 거래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정합성이란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간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DP에 의한 재무제표의 구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사업 영업자산 및 부채 투자자산 및 부채	사업 영업수익 및 비용 투자수익 및 비용	사업 영업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 재무자산 재무부채	재무 재무자산수익 재무부채 비용	재무 재무자산현금흐름 재무부채현금흐름
법인세	계속사업(사업 및 재무)과 관련한 법인세	법인세
중단사업	중단사업(세금공제 후)	중단사업
	기타포괄손익(세금공제 후)	
자본		자본

<표 2> SD에 의한 재무제표의 구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사업 부문 영업 구분 영업재무소 구분 투자 구분	사업 부문 영업 구분 영업재무소 구분 투자구분	사업 부문 영업 구분 투자 구분
재무 부문 부채구분 자본구분	재무 부문 부채구분	재무 부문
	복수구분거래 부문	복수구분거래 부문
법인세 부문	법인세 부문	법인세 부문
중단사업 부문	중단사업부문(세금공제 후)	중단사업 부문
	기타포괄손익(세금공제 후)	

<표 3>은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와 그 변동액의 내역 및 순액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재무상태표를 기초로하여 각 재무제표 간의 일체성이 유지되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표 3>은 어떤 기업의 일정기간의 거래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일련의 재무제표에서 공시

되는 각 과목 간 정보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체계화시켜 표시할 것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는 가로에는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각 과목이 표시되고, 세로에는 각 과목의 기간 변동액의 내역이 표시된다. 즉 이는 기초 재무상태(A)와 기말 재무상태(B)의 변동액

<표 3> 재무상태와 그 변동에 관한 표에 의한 재무제표의 일체성

(단위: 백만 원)

과목													현금		
유보이익	자본금	미지급법인세	미지급이자	장기차입금	리스부채	외상매입금	투자유가증권	단기투자자산	매각예정토지	유형자산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7)	(8)	(8)	(2)	(4)	(3)	(11)	4	3	0	9	10	11	6	기초 재무상태(A)	
(94)												94		① 외상 매출금	
												(87)		② 외상 매출금의 회수	
						(27)					27			③ 외상매입금	
						10								④ 외상매입금의 지급	
19											(19)			⑤ 매출원가	
										15				⑥ 유형자산의 취득지출	
3										(3)				⑦ 감가상각비	
8														⑧ 영업비용/지출	
1														⑨ 리스이자비용/지출	
								2						⑩ 양도성예금의 예입	
(3)														⑪ 이자수익/수입	
							(2)							⑫ 유가증권처분수입	
(3)							3							⑬ 유가증권평가이익	
				3										⑭ 장기차입금수입	
2														⑮ 이자비용/지출	
	(20)													⑯ 주식발행수입	
15		(15)												⑰ 미지급법인세	
		13												⑱ 법인세지출	
									4	(4)				⑲ 매각예정토지	
(5)							5							⑳ 기타포괄손익	
(64)	(28)	(10)	(2)	(1)	(3)	(28)	10	5	4	17	18	18	64	기말 재무상태(B)	
(57)	(20)	(2)	0	3	0	(17)	6	2	4	8	8	7	58	재무상태의 변동(B-A)	

주) 유보이익은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이다.
 ①~⑳에서 밑줄 부분은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의 내역을 자산, 부채, 자본의 각 과목으로 표시한 것이다. 표의 우측에는 ①에서 ⑳까지의 재무상태의 변동 원인을 손익거래와 현금거래로 설명한 것이다.

<표 3>로부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도출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는 기초 재무상태(A)와 기말 재무상태(B)의 행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포괄손익의 열로부터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의 열로부터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재무상태의 특정 항목의 기간변동액에 대한 내역을 표시한 것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각 과목을 SD의 새로운 구분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이 표시에 맞춰 손익거래와 현금거래로 설명되어 있는 재무상태의 변동원인도 SD의 구분으로 바꾸어 보았다. 이렇게 되면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도 재무상태표와 같은 구분의 것으로 된다.

DP에서는 경영자가 기업의 중심적인 영업활동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에 따라 사업자산 및 사업부채를 영업과 투자로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대해 SD에서는 이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같이 작용하는 경우(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는 영업활동으로,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제조업에서의 이자수익 또는 배당금 수익)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방법이 DP의 정의보다 주관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있다.

<표 4>에서는 현금이 현금흐름표의 어느 구분에 이용되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현금을 재무상태표의 각 구분으로 분류하였는데, SD에서는 현금을 복수의 구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경영자가 현금을 미래에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현금을 분류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재무제표의 이용자에 오해를 초래하는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SD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채를 영업부문 안에 영업채무라는 소구분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퇴직급여채무나 리스부채가 그 예로 이 부채는 장기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중대한 재무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재무부문이 아닌 영업채무구분으로 표시하여 영업의 차감항목으로 하였다.

SD에서는 DP의 재무부문에 대해 그 정의가 애매하고 DP에 대한 코멘트에서도 명확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정합성 있게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SD에서는 재무부문이 기업의 자본구성과 일반적으로 동등한 항목, 즉 부채와 자본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산은 포함

<표 4> SD의 새로운 구분표시에 의한 재무제표의 일체성

(단위: 백만 원)

중단사업	법인세				재무							사업													
					자본			부채				투자				영업				영업 채무					
매각예정토지	유보이익	미지급법인세	현금	유보이익	자본금	현금	유보이익	미지급이자	장기차입금	현금	유보이익	단기투자자산	투자유가증권	유보이익	리스부채	의상매입금	유형자산	재고자산	의상매입금		현금				
0	-	(8)	-	(7)	(8)	-	-	(2)	(4)	-	-	4	3	-	-	(3)	(11)	9	10	11	6	(A)			
															(94)				94			①	영업	사업	
																		(87)	87			②			
																(27)	27					③			
															10						(10)	④			
															19			(19)				⑤			
																	15				(15)	⑥			
															3		(3)					⑦			
															8							(8)			⑧
															1							(1)			⑨
																						(2)			⑩
												(3)	3										⑪	투자	
												(2)	2												⑫
												(3)	3												⑬
									3	(3)													⑭	부채	재무
							2	(2)															⑮		
				(20)	20																		⑯	자본	
																								복수구분거래	
	15	(15)																					⑰	법인세	
		13	(13)																						⑱
	4																(4)							⑲	중단사업
				(5)								5												⑳	대체
	(15)		13	(52)		(20)	(2)		5	6		(3)	63									5	㉑		
4	-	(10)	-	(64)	(28)	-	-	(2)	(1)	-	-	10	5	-	-	(3)	(28)	17	18	18	64		㉒		
4	-	(2)	-	(57)	(20)	-	-	0	3	-	-	6	2	-	-	0	(17)	8	8	7	58		㉓		
																									(B)
																									(B-A)

주) 유보이익은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이다.
 ㉑ 다음의 대체는 현금(영업 부문) 또는 유보이익(자본 부문)으로의 대체를 의미한다.
 ①~㉓은 각각 <표 3>의 ①~㉓에 해당한다.

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부채 및 자본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파생상품 자산은 유일하게 예외로 하였다.

현금 및 단기 투자자산을 재무상태표의 재무부문의 부채구분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용자는 재무부문을 순차입액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 이에 SD에서는 현금은 영업부문으로, 단기투자자산은 투자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DP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영자 접근법(management approach)에서는 경영자가 자산 및 부채를 사업활동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SD에서는 자산 및 부채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기능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경영자에 의한 판단의 여지가 적게 되므로 SD에서는 경영자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DP에 대한 코멘트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자는 경영자 접근법을 지지한 반면, 이용자는 이 접근법의 주관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작성자는 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이용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반영함으로써 기업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업 간 비교 및 상대적 기업평가에 나온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합적이고 통일적인 분류가 될 수 있는 접

근법을 추구하였다.

SD에서는 이렇게 일체성의 원칙과 분해의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가 표시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및 유용성이 크게 개선되리라 보고, 이로부터 기대되는 이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SD, BC18).

- 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의 업적을 자본구성과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 이는 모든 보고기업이 재무관련 결정이나 관련되는 활동의 영향을 다른 활동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② 기업의 재무상태와 업적에 대한 이용자의 분석과 통찰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되는 추가적인 분해 정보에 의해 많이 개선된다. 추가적인 정보는 보다 상세한 정보에 의한 투자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를 재무제표의 이용자에 제공하게 된다.
- ③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각 보고기간에 각 재무제표 숫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공통적인 구성을 확립하는 것에 의해 이용자가 정보를 보다 쉽게 관련지을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업이 관련정보를 각 재무제표의 동일한 부문 및 구분으로 표시하기 때

문이다.

- ④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의 원천과 사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이용자의 분석은 기업의 전체적인 현금흐름을 완전히 반영하게 되어 현금흐름 정보의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절약된다.
- ⑤ 주식으로 제공되는 자산 및 부채의 표시과목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무엇이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가져오는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보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든지, 보고되는 재무정보에 예측과 판단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Ⅲ.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SD에서는 DP와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에 각 부문과 구분의 현금흐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수입이나 거래처에 대한 현금 지출과 같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SD, 192).

- ① 직접작성법: 회계장부에서 직접적으로 현금 수입·지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 ② 간접작성법: ㉠부터 ㉢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식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현금수입·지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 ㉠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응하는 수익 및 비용의 금액(고객에의 매출 등)
 - ㉡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는 항목(자산평가손실이나 재분류 등)
 - ㉢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을 변동시키지만 수익 및 비용과는 관련이 없는 현금거래(토지의 취득이나 처분 등)
 - ㉣ 영업수입 또는 영업지출과는 관련이 없는 기타 항목(매출채권으로 분류되는 판매리베이트 등과 같은 고객과의 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액 등)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 간접작성법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사용한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간접작성법으로 현금흐름을 나타낸 과목에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과목에 대응하는 표시는 가능하게 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 및 비용의 과목과는 대응할 수 없다.

SD에서는 다음의 이유에 의해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제안하고 있다(SD, BC172).

- ① 재무제표의 다양한 이용자에 대해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②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③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 및 비용과 현금흐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향상시킨다.
- ④ 영업현금흐름의 영업이익에의 조정표가 공시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와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금까지의 학술연구에 의하면 직접법이 보다 나은 예측정보를 제공하고자²⁾, 분석 및 처리에 있어 실수가 없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⑥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추세분석 및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직접법의 현금흐름표에는 현금의 수입·지출과 재무상태표 및 포

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와의 관련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기 중의 현금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의 원천과 사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포괄손익계산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되고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도입에 대해 재무제표의 작성자로부터는 회계시스템의 광범위한 변경이 필요함과 동시에 데이터 기억 및 처리 등의 시스템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SD에서는 많은 기업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수정함으로써 이용자가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모든 단점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SD에서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도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현금흐름의 분해에 대해서는 DP보다 완화시켰다. 즉, DP에서는 현금흐름표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 정보와 마찬가지로 성격별과 기능별로 분해되는데 비해, SD에서는 성격별로만 분해하도록 하였다.

DP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성격별 또는 기능별 수익 및 비용 과목과 이에 대응하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

2) Krishnan and Largay III(2000)과 Orpurt and Zang(2009)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보다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미래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이익의 예측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흐름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SD에서는 현금흐름표의 과목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능별 과목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어떤 자산을 구입할 경우 당해 자산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별 현금흐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금 지출의 계정을 이에 대응하는 기능별 비용과 관련지어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관련은 현재의 기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이익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으로 조정하는 표(영업이익조정표)를 현금흐름표의 보충정보로서 공시하도록 하였다. 영업이익조정표에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내용을 조정하여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계산한다(SD, 173).

- 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는 영업손익 항목(감가상각비 등)
- ② 영업자산 또는 영업부채(재고자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의 당기 중의 변동
- ③ 영업자산 또는 영업부채의 취득, 매각 또는 결제에 의한 현금흐름(자본적 지출이나 만기가 지난 부채의 현금결제 등)

이 영업이익조정표는 간접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출발하여 영업활동에 의한 현

금흐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당기순이익에 조정하는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비교하여 조정항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DP에서는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SD에서는 현금흐름표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IV. 주식의 공시정보

SD에서는 기업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주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각 항목을 주식의 관련정보와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면서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SD, 207).

- ①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에 관한 정보와 특정한 회계방침을 표시한다.
- ② IFRS에서 요구되는 정보 중 재무제표의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한다.
- ③ 재무제표의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을 이해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새로운 공시사항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재무상태의 당

기변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인식되는 재추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자산 및 부채의 증감분석

SD에서는 DP에서 제안하고 있는 현금흐름을 포괄손익으로 조정하는 표(DP 조정표) 대신에 경영자가 재무상태의 기간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의 중요한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사이의 변동을 분석하는 표(증감분석표)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³⁾

증감분석표에는 다음의 증감내용을 식별하여 당해 구성요소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SD, 246).

- ① 현금의 유입과 유출
- ②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비현금거래(신용판매 또는 이자비용 등)
- ③ 반복적이지도 경상적이지도 않는 비현금거래(합병 등)
- ④ 회계배분(감가상각비 등)
- ⑤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

3) SD에서는 증감분석표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의 제 II장에서 일체성 있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표 3>이나 <표 4>가 증감분석표의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⑥ 재추정(공정가치 변동이나 외화거래 등)

이 증감분석표는 DP 조정표에 표시되는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인데, DP 조정표는 현금흐름을 포괄손익으로 조정하면서 포괄손익을 다음의 구성요소로 분해한 것이다(DP, 4.19).

- ①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수입 또는 지출
- ② 재추정 이외의 발생항목(계약상 발생항목 및 감가상각비와 같은 규칙적 배분 포함)
- ③ 재추정 중 경상적인 공정가치의 변동 또는 경상적인 평가액 수정
- ④ 재추정 중 경상적인 공정가치의 변동 또는 경상적인 평가액 수정 이외의 것

이와 같이 현금흐름에서 포괄손익까지의 조정을 포괄손익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 DP 조정표이다. 이 DP 조정표에 의해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간의 정합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DP 조정표에서는 네 가지 구성요소 중 재추정 이외의 발생항목 란에 많은 내용이 집중 되는 등 그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SD에서는 재추정 정보를 하나로 정리하고 특정의 자산 및 부채의 증감분석 정보를 공시하여 유용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DP 조정표에서는 현금흐름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모든 과목을 조정하도록 한 데 비해, SD의 증감분석표에서는 경영자가 현금흐름 또는 이익의 획득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재무상태표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재무제표로부터 구하기 어려운 정보인 운전자본(유동자산-유동부채) 항목과 순차입(차입액-상환액) 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

SD에서는 이와 같이 자산과 부채 잔액의 증감을 분석하는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DP 조정표를 제안할 때와 마찬가지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증감분석표의 주석에 의한 공시는 단순히 현금흐름 관련 과목을 수익·비용 과목으로 조정하는 정보가 아니라 재무제표와 자산·부채의 증감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정보에 의해 기업의 현금흐름 또는 이익 획득의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과목의 증감에 대한 명료성이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SD에서는 DP에서 제안한 포괄손익을 현금흐름으로 조정하는 표 대신에 중요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분석하는 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재측정에 관한 정보

재측정은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 동시에 다음의 결과 발생하는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말한다(SD, 234).

- ① 현재가격 또는 현재가치의 변동(또는 실현)
- ② 현재가격 또는 현재가치의 예상액의 변동
- ③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의 측정에 이용되는 예상액 또는 예상방법의 변경

SD에서는 이러한 재측정에 관한 정보를 단일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주석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비용 항목의 재측정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재측정의 정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부문·구분과 표시과목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소계 또는 합계는 주석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지만, 모든 과목과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SD에서는 재측정을 재측정 기간의 포괄손익에 영향을 주는 변동만으로 정의하도록 결정하였다. 재측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목적은 어떤 기간의 포괄손익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장래 어느 정도 반복되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

· 부채의 변동 중 포괄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유형자산의 취득 등)은 재측정으로 보지 않는다.

재측정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① 공정가치의 변동
- ② 자산(재고자산 포함)의 손상차손
- ③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그러나 재측정은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시간의 경과를 원인으로 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의 변동
- ② 정기적인 회계배분(감가상각 등)

그런데 자산 또는 부채의 변동이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재측정의 영향과 재측정이 아닌 항목의 영향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SD에서는 기업은 후자, 즉 재측정이 아닌 항목의 영향을 재측정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V. 맺음말

이상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IASB의 SD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일체성의 원칙과 분해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재무제표는 부문, 구분, 소구분으로 나누어 관련 정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둘째, 일체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위해 현금흐름표는 각 부문과 구분의 현금흐름을 직접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이익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으로 조정하는 표를 주석이 아닌 현금흐름표의 일부로 공시하여야 한다.

셋째, 포괄손익을 현금흐름으로 조정하는 표 대신에 기업 재무상태의 당기변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분석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인식되는 재측정에 관한 정보를 단일의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SD의 제안은 재무제표 표시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DP에서 추구하고 있던 이론적 합리성에서 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이용자의 이해조정을 위한 실행가능성의 추구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이론적 합리성이란 재무제표의 정합성을 말하며, 실행가능성이란 실무상 배려를 말한다. 이러한 이론적 합리성에서 실행가능성으로의 이행에 의해 재무제표 작성의 번잡성의 경감, 작성비

용의 경감 및 재무제표의 편리성의 향상 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IASB와 FASB 공동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SD의 제안, 그 중에서도 부문별로 분해하여 일체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분석 및 재추정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이용자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작성자에는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이의 실행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IFRS의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IFRS로 채택된다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어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IFRS로 채택되기 전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FASB의 SD는 IASB의 SD와 비교하여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의 향방

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IASB는 재무상태표에 최소한 표시해야 할 과목에 관한 규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IAS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IFRS의 규정을 유지·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FASB에서는 이미 지침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규정은 필요 없다고 하고 있다.

둘째, IASB는 기업 전체의 성격별 수익과 비용 정보를 포괄손익계산서의 본체나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FASB는 복수의 부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성격별 정보에 대한 주석을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문별 영업손익, 영업자산, 영업부채, 영업현금흐름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셋째, IASB는 차입의 구성요소인 자산 및 부채의 증감분석을 단일의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비해 FASB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1]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ff Draft of an Exposure Draft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Proposed 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10.
- [2]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Board, *Cash Flows Statement*,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Vol.7 (1992).
- [3]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Vol.1(1997)(revised 2003 and 2007).
- [4]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eliminary View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Discussion Paper, 2008.
- [5]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ff Draft of an Exposure Draft: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X*, IFRS Foundation, 2010a.
- [6]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ogress Report on Commitment to Convergence of Accounting Standards and a Single Set of High Quality Global Accoun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2010b.
- [7] Krishnan, G.V. and J.A. Largay III, "The Predictive Ability of Direct Method Cash Flow Information,"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Vol.27, No.1/2(2000), pp.215-245.
- [8] Orpurt, S.F. and Y. Zang, "Do Direct Cash Flow Disclosures Help Predict Future Operating Cash Flows and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Vol.84, No.3(2009), pp.893-935.